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12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시편 138장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얼음 깨기

허드슨 테일러 - 젖은 바닥에서의 결단

19세 때 어느 주일 저녁,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그는 어느 가난한 가족을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발했습니다. 그 집은 너무 가난하여 아내는 굶주린 아기를 품에 안고 울고 있었고 집 안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테일러의 주머니에는 단 하나의 동전만이 있었습니다. 그 동전을 주면 그 주일 식사까지 해결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위해 기도해드릴게요." 그러자 성령의 강한 감동이 왔습니다. "기도 할 것이 아니라 도와라." 그는 마음속으로 계속 저항했습니다. "이 동전만 없으면 나는 굶어야 하는데..." 그러나 결국 그는 동전을 내어주었고 가족은 울며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굶은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제부터 당신이 생각나서 지금 막 배달된 이 봉투를 전해드리라 주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금화가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빗지지 않으신다. 그분을 신뢰하며 드린 것은 반드시 배로 갚으신다."

[나눔] 당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희생 가운데 믿음을 드린 경우가 있나요?

교회행사

12월

- 14일 목장 방학 / 어와나 종강
- 24일 성탄전야
- 25일 성탄
- 31일 송구영신예배

1월

- 1-3일 새해 말씀과 기도 (레위기로 여는 새해)
- 4일 신년감사주일/ 교회 설립 기념일(6주년)
- 6-17일 태국단기선교/ 예수밀림축제

경배 찬양

내 영혼이 은총입어

-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소식

1. **26년 달력**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탁상용만 제작했으며, 태국밀림교회와 캄보디아 여호수아센터, 다음덤봉센터, 굿일센터 등을 달력에 담았습니다.

2. **총여전도회 정기총회** 총여전도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각 여전도회 모든 회원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장소 : 본당
시간 : 14일(주일) 오후 5시

선교

[박영주 선교사]

캄보디아

- 여호수아센터 한국어 수업을 통해 복음이 현지의 영혼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 여호수아 센터의 훈센 고등학교와 대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 가정의 평안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한문장 큰 울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이 따른다.”

허드슨 테일러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라도. [시편 137장 6절]

시편 137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처절하고 솔직한 인간의 절망과 신앙의 몸부림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시인은 바벨론 포로의 끌려온 한가운데서, 손발이 쇠고랑에 채워지고 삼 개월의 혹독한 여정을 지나 도착한 낮은 땅에서, 갑작스레 무너져버린 인생을 마주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한순간에 찾아왔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슬픔, 분노와 좌절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단순한 슬픔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신앙의 교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실패, 배신, 상실, 병, 관계의 붕괴 같은 “바벨론 강가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서야 하는가? 시편 137편은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길을 제시합니다.

1 |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억을 되살리신다.

시인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이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시온”은 다윗 성,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곳,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던 자리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던 과거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울부짖을 때 떠오르는 말씀, 한때 나를 붙잡아 준 은혜의 경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다시 살아날 때,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다. 내가 잊고 있었을 뿐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절망은 기억을 지우지만, 성령은 기억을 되살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나눔] 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간 일이 있나요?

2 | 통곡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기억이 되살아난 시인은 곧 울음을 터뜨립니다. 개혁성경은 “울었다”고 기록하지만, 원어적 뉘앙스는 “통곡했다”입니다. 왜 울게 되었는가? 그가 부르던 노래는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여호와와 노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압제자들은 조롱하며 말합니다. “그 노래 한번 불러봐라!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그 노래!” 시인은 그 말을 듣고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쫓겨난 아픔이며, 누군가가 자신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신앙인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던 그 시온의 시간과 비교할 때, 지금의 나는 너무 멀어져 있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울음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통곡은 신앙의 후퇴가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깊은 호흡입니다. 시인은 기쁨의 노래 대신 울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입니다.

[나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것을 세상과 타협한 일이 있나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야 할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3 |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시편 후반부, 특히 7-9절은 매우 강렬합니다.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구절은 잔인함을 정당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토해낸 거룩한 분노의 기도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실제로 저지른 잔혹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식입니다.

시편 137편의 기도는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 이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소서” 라는 절규입니다. 시인은 복수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절망 속에서도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원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억울함을 기억하시고, 눈물 하나도 잊지 않으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나눔]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눠봅시다.